

트럼프에 충성? 배반? 기로 선 세션스 美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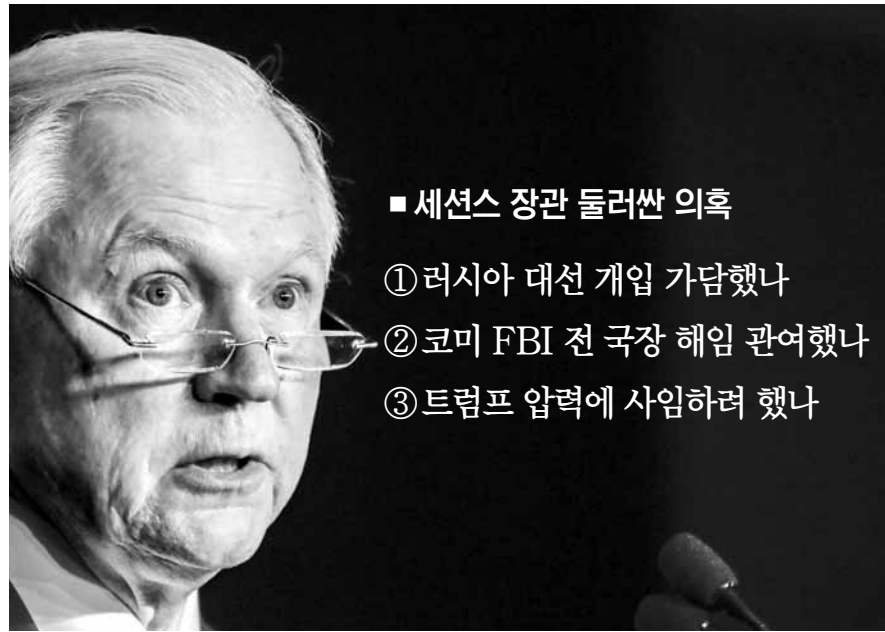
오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 2R
공개증언 결심... 폭로 여부 주목
트럼프 "특검서 선서증언할 것"
주 정부, 반부패 위반 혐의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리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개증언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의 핵심인 세션스 장관의 의회 진술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을 공개로 증언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못지않게 시선을 끌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 접촉 사실을 부인했지만, 트럼프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하던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르게이 키슬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 사실이 불거져 위증 논란에 빠졌다.

강직한 의회주의자로 유명한 그가 장관



■ 세션스 장관 둘러싼 의혹

- ① 러시아 대선 개입 가담했다
- ② 코미 FBI 전 국장 해임 관여했다
- ③ 트럼프 압력에 사임하려 했다

직 사퇴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러시아 내통설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인이 자신으로부터

직접 진실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공개증언을 결심했으며,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성명을 전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회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한다면 그 장소는 의회가 아닌 특검이라고 백악관

이 12일(현지시간) 밝히기도 했다.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서증언'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물러 특검에게 증언할 것인지를 질문받았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 특검 앞에서야 마이클 폴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제임스 코미 FBI 전 국장이 의회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는 '선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명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에 설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워싱턴DC 칼 레이신, 메릴랜드 주(州) 브라이언 프로시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반부패 조항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조항은 미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하원 군사위에서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티스 美국방 "북핵, 미군 기지 위협"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군 기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기지가 위협에 놓여있다는 언급과 관련, 위협의 주체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매티스 장관은 이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역 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4년 만에 국방수장으로 돌아온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군의 저하된 전투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는데 시퀘스터(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보다 더한 적(敵)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740억 달러로 편성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390억 달러로 늘어난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두어서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4년 1월 평양서 만난 김정은과 로드먼.

'김정은 절친' 로드먼

북미 긴장 속 네 번째 방북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13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 CNN방송이 북한 내 북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은 평양의 CNN 기자에게 이날 로드먼이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으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이날 로드먼은 북한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CNN에 목격됐으나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최소 네 차례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의 다섯번째 방북 소식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인 억류로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NBA 선수 시절 '악동'으로 이름을 떨친 로드먼의 방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농구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힘 빠진 메이, 브렉시트 강경책 재검토 시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총선캠페를 당한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메이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보수당 하원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친(親) EU 의원으로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은 "총리가 공감대 형성에 관해 말했다. 그는 당내 브렉시트와 관련한 당내 다른 시각들을 인정했고, 당뿐만 아니라 의회(의견들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가 요구들을 받았고 동의했다. 브렉시트에 관한 당내 모든 의견을 듣고 당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브렉시트와 관련, 더 나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장관은 "브렉시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총리도 인정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내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이 같은 발언은 '하드 브렉시트'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로 영국이 사법권, 국경 통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이탈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힘 얻은 마크롱, 트위터로 '스트롱맨' 길들이기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이 의석의 최대 77%를 석권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과격적인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선 트위터 활용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메시지 발신 일상화를 의식한 듯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비교는 듯한 문장을 구사, '반트럼프' 성향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랑스로 오시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연설 동영상 상을 첨부했다. 이민수용에 부정적인 트럼프를 의식, '개방된 국가' 프랑스를 세계에 어필하는 내용이다. 이 트윗은 5000회에 육박하는 리트윗이 이뤄졌다.

링크된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는 지난 1주일간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트럼프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직후 마크롱은 지구온난화 대책은 세계적인 과제라고 호소했다. 협정 이름에 '파리'가 들어있는 데서 보듯 프랑스는 이 협정을 발표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서 단골로 이용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모방해 반격한 모양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는 약 140만명이다. 3200만명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지만 취임 이후 팔로워를 착실히 늘려 오고 있다. 마크롱은 지난달 29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부터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의 동성에 탄압 사건까지 주저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 '스트롱맨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았다. /연합뉴스

NYT "트럼프, 文에 사드 압박 말아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NYT는 '강대국 사이에 긴 한국'이라는 제목의 12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그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NYT는 "사실상 문 대통령은 두 강대

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공받는(pincered) 처지"라고 진단했다.

NYT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협상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 뒤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3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룬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 17억 5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